

YTN 재승인, 우리 모두의 승리!

2009년 2월 24일 12시 45분,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침내 YTN에 대해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회의실 방청석 한구석에서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내내 긴장해야 했던 나는 가슴을 진정시킬 새가 없이 바쁘게 손을 움직여야 했다. 회사로 SMS를 보내야 했고, 서둘러 단신 기사를 작성해야 했다. 머릿속에서는 일일이 SMS에 답장을 하지 못했지만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즐거워할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사실 하루 전날 취재원들을 통해 결과를 접하긴 했지만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었다. 5인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회의인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을 수는 없었다. 막상 다음날 회의가 시작되고 보니 우려대로 회의 진행은 순조롭지 않았다. 한 위원이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했다. 재승인 이후 상황이 불투명하니 이후 상황을 담보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위원은 3년 후에 다시 재승인 심사를 하니 그때 가서 YTN이 제시한 이행계획을 심사하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토론이 길어지며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12시 넘어 정회까지 가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속개 후에 위원 간 의견 조정이 조금씩 이뤄지며 최종 결론이 도출됐다. 일단 재승인 결정을 내리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한 달 후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아예 단서가 없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재승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이라서 안도의 한숨을 내릴 수 있었다.

기사 작성과 리포트 제작 등 바쁜 사후 작업을 끝내고 난 후 그동안 지나온 과정을 차분히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11일 방통위 회의에서 재승인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진 후 2달간 노사는 보류 사유 해소를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노조는 방송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한 인사 명령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사는 보도국장 선거라는 방식을 택해 서로

한발씩 뒤로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심사 보류 결정 이후 2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2달 안에 YTN이 재승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노사 간에 이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우리 YTN은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소년 다윗처럼 작지만 강한 조직이었다. 위기 때마다 그에 굴복하지 않았고,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KBS가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을 추진했던 때에도, IMF 환란으로 극심한 경영 위기에 빠졌던 때에도 우리 YTN은 노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위기를 잘 극복해 냈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나는 이번 재승인 위기 앞에서도 우려는 없지 않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재승인 이후의 과제들도 우리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간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생존을 또다시 위협하는 미디어법 개정, 치열했던 노사 갈등 해소, 6명의 해고자 복직 등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문제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충분히 믿는다면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40년을 산 뒤 30년을 더 날기 위해 험한 산 속에 들어가 낡은 부리와 날개, 발톱을 모두 뽑아내는 변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지만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 완전히 새로워지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우리 YTN 또한 지금 현재 노와 사라는 두 날개로 더욱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 고통스러운 변화의 시간을 맞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다.

류환홍 (방통위 담당기자) 경제부



YTN타워 인수

YTN은 3월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YTN타워를 코크렙 제4호로부터 취득키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류소는 서울역 YTN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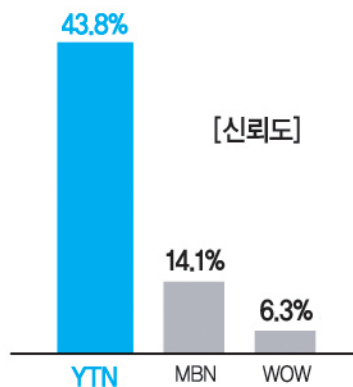
—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



2월 16일부터 YTN 앞을 통과하는 28개 노선 980여 대의 버스에서 'YTN 문구가 나오는 안내 방송이 실시되고 있다.

YTN타워 앞 버스정류장도 '서울역 YTN'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이로써 YTN타워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YTN 경제보도 가장 신뢰”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케이블 채널중에 YTN의 경제 보도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은 43.8%의 지지를 얻어 케이블 채널 가운데 신뢰도 1위에 올랐다. YTN에 대한 신뢰가 높은 분야는 경제연구소(52.9%), 증권사 애널리스트(46.4%), 보험사(41.7%), 은행(14.3%) 순이었다. 2위와 3위는 각각 mbn(14.1%), WOW 한국경제TV(6.3%)가 차지했다.

경제매거진 '포춘코리아'가 3월 창간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다. 증권 애널리스트를 비롯해 은행, 보험, 경제연구소 관계자 4백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YTN 브랜드 이미지 가장 강해

- 신뢰도 · 독특성도 2위 차지 -

YTN의 브랜드 이미지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채널 가운데 가장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정현 중앙대교수가 최근 '한국광고홍보학회' 봄호에 낸 논문을 보면 YTN은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채널 가운데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강한 채널 1위에 올랐고 2위는 MBC, 3위는 OCN 순으로 나타났다.

채널의 '신뢰도'와 '독특성' 면에서도 YTN은 EBS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차원별 이미지 점수 평균에서도 4.80으로 4.99인 MBC의 뒤를 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김정현 교수가 지난해 10월 20일에서 30일까지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220명을 설문 조사해 얻은 결과다.

YTN 6년 연속 흑자 달성

- 연간 매출액 1,000억 달성 -

YTN이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지난 2003년 이후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YTN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44억1400만원으로 사상 처음 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영업이익은 74억900만원, 당기순이익은 80억89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4분기에는 4억56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23.0%, 13.0% 줄었다. 회사는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수입 감소 등 경영 악화에 대비해 올해부터 임원과 실·국장들의 상여금을 각각 300%와 200% 삭감했다.

기상캐스터 인사드립니다

엄마~ 꼭 YTN에 들어갈게!



2008년 봄, 남대문을 지나며 어머니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해 9월 8일 오전 8시 45분 저는 YTN에 와 있었습니다. 입사를 해서 두 달 정도까지는 이곳이 정말 내 회사인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신기함과 감사함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에 가면 뭔가 딱딱해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많은 긴장이 됐지만, 그렇게 원하고 꿈꾸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좋았고,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선배들과 가까워지면서 오고가는 한마디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상예보가 많이 낯선 저는 출근길마다 '아, 오늘은 어떤 새로운 일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출근 시, '어, 그래 왔니?' 하며 반겨주는 선배들의 한마디로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이런 인사 한마디를 시작으로 선배들과 오고가는 한마디에서 저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지금 내가 회사를 가지 않으면, YTN을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어떤지, 출근길 교통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없겠구나. 그들에겐 내가 참 중요한 사람이겠구나.^^" 제 스스로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또 행복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에...

누구나 그렇겠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제가 회사를 즐겁게 다닐 수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날씨와 교통 정보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제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생긴 것은 바로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행복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회사, 선배들께 받은 것을 보답하는 길은 제가 보다 열심히 하는 프로그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표현하지 못한 감사함을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네요. 덕분에 회사에 들어와 저의 좌우명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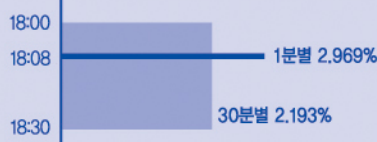
'최고가 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하자!' 아직은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한 신입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고의 노력을 해서 모자란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겠습니다. 이런 노력과 함께 항상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발전하는 '멀티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조현선 기상캐스터 문화과학부

이달의 최고 시청률



1월 3일 YTN24 [국회 격렬 대치]



2월 25일 굿모닝코리아 3부 [북 미사일 발사]



게시판

- [입사]** 윤병조 타워운영팀 2.16 / 신정옥 국제부 1.9 / 정호윤 보도국 1.2 / 박호은 제작기술팀 1.2
- [퇴사]** 장영환 매체협력팀 2.16 / 손수정 국제부 1.6 / 김명열 타워운영팀 1.13
- [승진]** 부국장대우 ▶ 정영근 보도국장 1.30
- [부음]** 정상일 타워운영팀 모친상 2.28 / 안이택 총무팀 모친상 2.24 / 김범환 차장대우 광주지국 빙모상 2.9 / 최동숙 관제팀 시부상 1.30 / 이상천 차장대우 제작기술팀 부친상 1.27 / 이영훈 타워운영팀 빙부상 1.24 / 김명열 타워운영팀 본인 1.13 / 박태환 사이언스TV본부 편성기획팀 부친상 1.9 / 남상규 영상부국장 부친상 1.1
- [결혼]** 박홍구 차장대우 기획총괄팀 2.28 / 이지연 국제부 2.22 / 강기찬 차장대우 중계팀 2.14 / 전병모 YTN라디오 방송기술팀장 자녀 2.7 / 김솔희 매체협력팀 3.7



국립국어원과 방송 언어 세계화 공동연구 협약 체결 (1. 8)



'돌발영상' 한국기자상 특별상 수상 (2. 18)



김미선 앵커, 공룡엑스포 홍보대사 임명 (1. 15)

보도국장에게 듣는다

탐사·고발 프로그램 강화

정영근 보도국장과 호준석 한국기자협회 YTN지회장과의 e메일 인터뷰

공정한 방송은 YTN의 존재 이유이자 발전 전략입니다. 취임하면서 공정방송 제도화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공정방송 제도화의 구체적인 복안과 실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방송은 소신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는 제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명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만큼 공정방송은 YTN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취임 이후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에서도 공정방송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전했습니다. 사후적 조치와 예방적 차원에서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방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노조 차원의 공정방송 추진기구와의 접촉도 늘리고 월례 모임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과 반목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해 우리 YTN 기자들도 철저한 professionalism에 기초한 균형각각을 통해 저널리즘의 가치에 준하는 뉴스를 보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 당시, 일하는 분위기를 통해 뉴스 콘텐츠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YTN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입니까?

무엇보다 시청자들이 YTN에 바라는 것은 발빠른 보도라고 봅니다. 신속 정확한 보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론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YTN이 신속하게 움직이면 공중파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brand power는 이미 그 단계에 올라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재 인력과 장비 면에서 열세에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특종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생중계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른 방송에 비해 현장에서 탁월합니다. 따라서 현장 live 방송 비중을 확대하고 24시간 속보체제를 유지해 현장성있는 뉴스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돌발영상 역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부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경제뉴스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와 문화 뉴스를 확대하고 지역 뉴스를 확대해 매체 영향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청자의 관심과 애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블로그와 ucc 활용을 통한 trend 뉴스 개발에 치중하겠습니다. 신설된 보도제작팀의 역량을 증대시킬 겁니다. 언론의 기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탐사, 고발 기획프로그램 역시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뉴스에서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 편성 개편이나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우선 관심이 쏠리고 있는 편성과 조직 개편에 관해 말씀드리지요. 편성은 현재 4월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3월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주변 상황과 물리적 시간 요인들을 고려해 4월 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개선팀이 그간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1차 검토안이 마련됐고 편성개편팀이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과 틀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 개편 문제는 이런 편성 개편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작기능 강화와 새로운 앵커 충원 등도 YTN 뉴스의 활성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대목들도 편성과 조직 개편에 포함시킬 생각입니다.

징계자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보도국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뉴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인력 보강이 필수적입니다. 징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YTN 보도국의 정상화는 보도의 정상화를 의미합니다. 보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갈등과 반목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갈등 요인을 없애지 않고서는 보도의 정상화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노사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측은 경영진을 인정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하며 사측 역시 해고와 징계 문제에 대해 대응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단절된 노사간의 대화가 재개돼야 합니다. 집회와 징계의 악순환으로는 절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대화와 화합을 통해 상호 win-win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국의 정상화, 보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거듭 심사숙고하면서 보도국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도국 회의의 의제 설정(agenda setting)과 콘트를 타워, 부서간 조율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선거 당시 주니어 보드 신설도 공약한 바 있는데, 보도국 의제 설정과 기획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입니까?

보도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의제 설정은 사전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현재 국장 주재 부팀장 회의를 통해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무 부팀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서간 조율도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국장과 부국장간의 협의도 사전 사후에 긴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장단과 부팀장간의 소통도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의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진 차장급 기자들로 구성되는 주니어 보드(junior board)와 많은 대화를 가질 생각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는 차장급 기자들과 접촉 빈도를 늘림으로써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내 현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 일부 주요보직 인사(人事)에서 외부 로비·압력에 대한 구설수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조직과 공정방송을 위해서는 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인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조직의 건강을 위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원 인사에서도 적체적소에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팀장들의 의견을 제1의 요소로 삼았고 합리적인 전체 구도를 짜기 위한 국장의 독자적 판단도 있었습니다. 인사 이후 적지 않은 불만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사를 통해 보도



국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외부적 요인은 단호히 차단하면서 고부가가치의 지식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2월에 있었던 보도국 인사에 대해 그간의 사내 갈등을 치유하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선후배 간, 구성원 간에 쌓였던 갈등과 불신을 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실 것입니까?

이번 인사에서는 지연이나 학연, 배경을 배제한 능력위주의 인사 배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일의 성과와 조직에의 기여도를 냉철하게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선후배간의 갈등과 불신 해소, 이는 우리 ytn 조직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괴롭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선 징계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야 합니다. 선배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우선돼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YTN이 한국 언론 가운데 우뚝 서겠다는 일지된 목표를 향해 손잡고 걸어갈 때 그간의 갈등과 반목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YTN의 보도 방향은 어떤 것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내 문제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좀 작게 느껴지는 감도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당시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는 엄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만큼 YTN 보도 방향 역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얼마전 기획 보도했던 '일자리 시리즈'처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기획, 발굴 보도를 늘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조기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다른 우리의 현실을 보도하고 고환율 시대 극복 시리즈 같은 경제계의 애로 사항 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화두인데 신입 기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신입기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없지만 공격적인 채용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는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정상화된 뒤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사가 상생의 길로 접어드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는 언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국을 말한다 - 부산

해운대지국을 소개합니다

YTN에 지역 지국이 몇 개나 될까요? 9개라고 답한 당신은 분명 전 현직 사회2부 부원이거나 사회2부에 애정이 있는 분이십니다. 못 맞췄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당신에게는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10개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펴 가면서 수를 세다 실수하신 분, 아니면 부산지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수들입니다. 그러면 부산지국 사수들은 부산에 살아서 지국에도 오륙도 같은 지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부산에는 오륙도 같은 지국이 있습니다. 낮에는 안 보이다가 밤에만 보이는 지국. 이름하여 해운대지국입니다. 얼렁뚱땅 지국 반열에 이름을 올린 해운대지국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건물 2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국 순회 시리즈는 YTN 조직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지국인 '해운대지국'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제1의 조망권이라는 해운대 바다와 광안대교가 보이는 절경을 자랑하고 안으로는 부산지국 유일의 독거노인(?)을 자랑하는 부산의 명물이 바로 해운대 지국. 부산지국의 낮 시간 업무가 부산진구 범천동 알리안츠 빌딩 18층에서 이루어진다면 해운대지국은 밤 시간 업무(?)가 왕왕 이루어지는 비 상설 지국. 범천동 사무실에서 밤 시간 업무를 진행하면 OT가 발생하지만 해운대지국에서 밤 시간 업무를 진행하면 OT 대신 숙취가 발생.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해운대지국'은 부산지국장 손재호 기자의 숙소입니다. 대구에 부인과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두고 부산에서 독거노인 생활을 하고 있는 손 지국장. 좋은 곳에 아담한 숙소를 마련했지만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면 손 지국장도 한 명의 연약한 독거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한잔 소맥에 날리기 위해 해운대지국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운대지국 OT 발생

2009년 2월 9일 저녁 7시 30분쯤 손재호 지국장은 해운대지국에서 김종호 기자에게 전화를 건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대보름 달맞이 중계가 막 끝난 시각이다.

“중계 끝났으면 해운대지국으로 온나” 낮 업무가 끝났으니 밤 업무를 시작하자는 이야기다. 김종호 기자가 통화 내용을 중계팀 박주익 감독에서부터 온짱 강성호 형님까지 다 전했지만 반응이 신통찮다 야근(?)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해운대지국의 업무가 무척 고되(?)기 때문인 건지 중계가 끝난 직후 귀가를 서두르던 지국원들 다들 툭툭 거린다.

“지국장 터러 중계팀 있는 곳으로 와서 밥 사라고 해라” “그래 그러면 되겠네.” 중지가 모아졌다. 막내(겉보기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김종호 기자는 다시 해운대지국 손재호 지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의를 전한다.

“선배 반응이 안 좋습니다. 강 여기로 오시죠.”

“그래”? 짧은 대답이지만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는 말이다. 뭔가 착잡하다고 할까 하는 등등의 기본 말이다. 그래도 지국장은 해운대지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입에서는 쉽게 ‘내가 거기로 갈게’ 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해운대지국에 엄청난 인간 자석이 있어 그를 좀처럼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때 해운대지국에서 직선거리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화왕산에서 급보가 전해진다.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그 사건이다. 급보만 전해졌을 뿐 아직 현장 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운대에서 중계 장비 철수를 끝낸 부산지국원들은 일단 해운대지국으로 향했다. 손재호 지국장은 해운대지국에서 연신 현장에 있는 박종혁 기자와 서울 야근 팀에 전화를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 해운대지국. 밤 업무가 다시 시작됐다. 2년 만에 대계 파티가 열린 것이다. 2년 전 대계 파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 울진에서 조달했는데 어찌 영 부실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대계들도 스스로의 삶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인지...

어쨌든 YTN 재승인 축하와 부산지국의 신년회를 겸한 해운대지국의 밤 업무가 시작된다. 대계 딱지는 밤 비벼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 딱지란 딱지는 죄다 먹어치우는 블랙홀 박주익 감독, 대계 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규원이 아버지 박종혁 기자는 대계 판이 어서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 ‘너저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엄청난 멘트를 날리고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뀌는 손 지국장은

모처럼 해운대지국이 가득 차 남부러울 게 없는 표정이다. 지국원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한 마리 더 먹을까 고민하는 찰라 아무렇지도 않게 대계 한 마리 더 꺼내 똑딱 먹어치우는 새신랑 김 씨. 식중독 걸린 아들 영훈이 걱정 잠시 하다가 대계에 집중하고 있는 강현석 기자.

늦게 도착한 전재영 기자는 광속으로 대계를 먹어치우는 지국원들의 맹렬한 기세에도 몇 마리가 남아 있음을 감시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게 다리를 뜯기 시작한다. 요즘 유달리 먹는 것을 컨트롤 하는 지대웅 기자는 자신이 먹을 대계를 박종혁 기자에게 양보하고 스틸사진 찍기에 들어갔다. 이 때 부산지국의 두 운전기사 강성호, 박천욱 두 사람은 아무런 말없이 대계에 집중하고 있지만 비운의 창원팀 운전기사 문춘일, 회식자리에서도 막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잔심부름에 시달리고 있다. 처세의 달인 이철근 기자는 이런 난리 통에도 대계 몇 마리를 챙겨서 어디론가 상납하러 사라졌다. 너무 늦게 도착한 김석만 광고지사는 구석에서 다 식어버린 대계와 뚜껑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삼켜야

했고 해운대의 밤은 오가는 소맥과 담배 연기 사이로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OT는 없고 숙취만 남은 야근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공익광고

오늘 밤에도 해운대지국에서 야근이 계속되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맥이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벗이기는 하지만 끼니도 제대로 챙기기 힘든 독거노인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적이기도 합니다. 연말연시에만 집중되는 각계의 온정의 손길이 뜰해지면서 독거노인들이 큰 공허함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주변의 독거노인들이 소맥을 벗 삼아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면 내가 먼저 손을 잡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대계 35마리를 '꿀꺽' 하고도 안주가 부족해 족발과 치킨을 시켜 먹고 있는 부산지국원들.

- 뒷줄 왼쪽부터 운전기사 문춘일, 촬영기사 이철근, 취재기자 김종호, 촬영기사 전재영, 지대웅
- 가운데줄 왼쪽부터 운전기사 박천욱, 취재기자 박종혁, 광고지사장 김석만
- 앞줄 왼쪽부터 촬영기사 강현석, 운전기사 강성호, 부산지국장 손재호, 중계감독 박주익

걸어 조울 작업에 들어간다. 중계를 마친 지국원들은 업무 배당을 기다리고 있다. 해운대지국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얼마나 낮은 모습인가?

해운대지국에서 모처럼 '일'이 진행돼서인지 아니면 '갓' 임신한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는 김 기자를 배려한 것인지 손 지국장은 불박이장에서 외투를 꺼낸다.

“내가 갈게” 짧은 한마디와 뒤돌아보지 않는 쿨한 선배의 모습을 남기고 그는 창녕으로 향했다. 해운대지국을 아는 부산지역의 많은 인사들에게는 실로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날 해운대지국에서 처음으로 OT가 발생했다. 그런데 다른 지국원들은 다 OT가 발생했지만 손 지국장은 지국장이라서 OT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운대지국 대계 파티

김종호 부산지국

YTN FM 개국 1주년을 앞두고!

FM 94.5Mhz YTN FM입니다. HLQV

“기사님, YTN FM 자주 들으세요?” “차에 타면 매번 듣죠..” 늦은 밤, 퇴근길 택시 안에서는 YTN 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버스나 택시를 타면 종종 YTN FM을 만나게 됩니다. YTN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한지 1년이 조금 못되었지만, 이제 YTN TV에 이어 YTN 라디오 방송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손님은 이 방송국에서 일하나 봐요?” 목소리만 나오는 라디오 방송.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제 얼굴을 본적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YTN FM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YTN에 입사하기 전에 지역방송국에서 TV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라디오 방송은 텔레비전 방송에 비해서 쉽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목소리만 나오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은 제가 아나운서 공부를 다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작이나 표정으로 표현할 수 없고, 오직 목소리 하나만으로 청취자에게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만의 까다로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화면 없이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전달해야 하기에, 단어 선택, 문장 짜임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사실감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색만을 이용해서 그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소리라는 한 가지 매체만을 이용해서 방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미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했습니다. 꼬르륵~”

방송을 하다보면 방송시간 때문에, 혹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식사를 제때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동기들과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 때도 있고, 팀원들과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이 ‘꼬르륵’ 소리를 없애기 위해 의무적으로 혼자 눈물의 밥을 먹기도 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아는 동기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의무감에 먹는 눈물의 밥이 추억의 한 장면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죠.^^ 이렇게라도 밥을 먹어야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의 민감한 마이크 시설은 배고픈 신호음 꼬르륵 소리까지 청취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2시 10분입니다, YTN FM”

라디오 방송의 생명은 시간 약속입니다. 라디오 뉴스를 하다보면 시계처럼 정확한 인간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초단위의 시간관리 능력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하죠. 보통 정시 뉴스를 진행하게 되면 매시 9분 58초에 뉴스를 끝내야 하는데, 뉴스가 조금이라도 길어질 것 같으면 호흡조절을 하거나 문장을 순간적으로 줄여서라도 꼭 9분 58초에 마쳐야 합니다. 오차가 있으면 바로 방송사고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이렇다 보니 분 단위를 넘어서 초 단위의 시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요즘도 자다가

꿈에서 뉴스 진행 중 시간을 초과해서 뉴스가 잘리고 방송 사고를 낸 뒤 놀라서 깨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다른 일을 할 때도 시간 안배 하나는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진짜가 돼라. 가짜는 언젠가 들통 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뉴스를 한 지 어느새 일 년. 이제 뉴스와 절친해졌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하면 할수록, ‘앵커멘트를 어떻게 써야 청취자들에게 뉴스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고, 뉴스 속 ‘인터뷰’에 대한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라디오 뉴스는 화면 없이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모든 것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단어 선택과 문장 짜임새, 뉴스 흐름 등에 더 민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 음성으로만 전달하는 매체이다 보니, 항상 단어나 문장, 내용 등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처음엔 몰랐던 것들이 이젠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서, 공부해야 할 것도 전보다 더 많아졌고, 고민하고 배워야 할 것도 점점 더 많아 집니다. 모르면서 전하는 뉴스와 정확히 알고 전달하는 뉴스의 차이는 누구보다 청취자들이 잘 알 것입니다. 다행히 YTN이 ‘뉴스 전문, 보도 전문 채널’ 이기에 선배들을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을 곳도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 든든합니다.

현재 ‘문화나들이(토, 일 밤10시10분~12시)’ 라는 주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나들이에서도 역시 라디오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YTN 입사 전에 타 방송사에서 TV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했는데, 그땐 ‘안방마님’ 이란 별명처럼 그 방송의 중심에서 마치 주인공(?)처럼 진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 ‘문화 나들이’를 진행할 때는 소곤소곤 청취자와 소통하고 일상을 나누는 느낌, 대화하는 느낌으로 청취자의 친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화소식을 전하며,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마도 라디오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YTN FM 아나운서! 이것만은 갖춰야 한다.”

주말을 향해 가는 분주한 목요일. 아침부터 주말 프로그램을 녹음하고 뉴스 근무를 하고,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바쁘게 일을 하다가 뉴스 시간엔 또 미리 준비해서 시간에 맞춰서 뉴스를 하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오후 2시 반 뉴스’ 를 하던 중, 콧물이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왜 갑자기 콧물이 나오지?’ 하면서 계속 뉴스를 하다가 그치질 않기에 이상해서 살짝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니, 피가 툭툭 떨어지고 있을 뿐이고, 고 3때도 흘려보지 못한 코피가. 어릴 적 이후로 본 적이 없었던 코피가 쏟아진

겁니다. 그것도 뉴스 중에 말이지요. 손으로 주섬주섬 막고 가깝스로 뉴스를 마치고 나와서 휴지를 찾는데, 줄줄 새는 코피를 보며 주위 분들이 더 놀라셨다고 합니다. 코피 터지게 공부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여태껏 코피가 난 적은 없었는데.. 말 그대로 저는 이날, 코피 터지게 뉴스를 했습니다. (^~^)

‘뉴스를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전달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YTN 라디오 아나운서로 1년 동안 생활한 뒤 느낀 점은 점점 체력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아침 뉴스를 담당하는 조근, 밤과 새벽 뉴스를 담당하는 야근, 그 외에도 각자 맡은 주말 프로그램에 근무 시간대와 관계없이 주중에 준비하고 녹음하면서 방송과 혼연일체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방송 일을 진정 원 없이 하는구나.’ 싶으면서도, 그럴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걱정은 떨어지는 체력과 더욱 신경 쓰게 되는 목관리입니다. 결국은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근무시간이 비슷한 동기들과 운동할 곳도 알아보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몸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TV 방송도 아닌데, 편하게 다니지”

간혹, 주위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으니 편한 트레이닝 복에 생얼(맨얼굴)로 출근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라디오 방송이니까 복장이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깨끗한 옷차림, 그리고 얼굴에 정리정돈을 한 상태에서 방송할 때 방송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풀어지고 나태한 모습에서는 결코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YTN FM 아나운서들 모두 단정한 용모로 출근하려고 노력합니다. (^~^)

라디오가 ‘지는 매체’ 라는 말을 가끔 들곤 합니다. 저 역시, 라디오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과거에는 그런 생각에 고개를 끄덕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 흠뻑 빠져서 1년을 지내보니, 오히려 라디오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매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마이크 하나와 전화 하나라도 신속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매체이고, 특히 YTN 라디오를 통해 이동 중에도 언제든지 간편한 방법으로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과 1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10년 후 ‘YTN FM 개국 10주년’ 이 될 때는 내면이 풍족한 아나운서, 항상 겸손함이 생명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 글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손영주 YTN 라디오 아나운서

YTNDMB 시청률

지상파TV와 치열한 선두권 경쟁

2008년 8월 2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메일을 열어 본 나는 TNS미디어가 보내 준 세계 최초의 이동 방송, 지상파 DMB의 시청률 집계 표를 보고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잘 못 본 게 아닐까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결과는 지상파 DMB 6개사 8개 채널 중에서 YTNDMB의 비디오 채널 @YTN이 8월 1일자 시청률 집계에서 MBC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후의 시청률 경쟁에서 부침을 겪고 있지만 4위 아래로 떨어지는 일 없이 꾸준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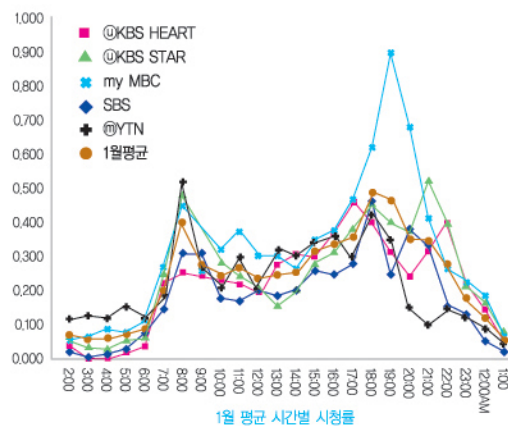
2009년 1월 현재, 지상파DMB 전용 단말기는 전국적으로 1,600만 대 넘게 보급됐다. 출범 3년여 만에 이처럼 폭발적인 단말기 보급증가세를 보인 매체는 지금까지 없었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으면서 출범했던 케이블 업계도 1,000만 가구를 넘어서기까지는 지난한 세월을 흘러보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말기의 폭발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광고시장은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았고 뉴미디어를 바라보는 광고업계의 굵은 움직임에 자극을 주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한 시청률 조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YTNDMB의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결코 시청률 조사가 달가울 리 없었지만 광고주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청률 조사라는 KOBACO 관계자들의 말에 달리 할 말이 없었기에 제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시청률 조사를 받아들여기로 했다. 사실 시청률 조사를 위해 6개사 편성 담당자들끼리 의견을 모을 당시만 해도 지상파 3사의 관계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미 지상파에서 하고 있는 시청률 조사를 굳이 뉴미디어에서도 할 필요는 없는데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시청률 조사를 위해 추가로 경비를 들일 수는 없다며 미적지근한 태도를 견지했지만 우리를 비롯한 비지상파 3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광고주 설득을 위해서는 시청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KOBACO의 지원에 힘입어 TNS와 시청률 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셈이지만 우리와 함께 했던 비지상파 나머지 두 회사에게는 미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YTN에도 밀리다니 이럴 수가?”

지상파 3사 사이의 시청률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1995년 3월 1일 케이블 출범 이후 지상파TV 콘텐츠와 비지상파TV의 콘텐츠가 동일 플랫폼에서 경쟁을 벌인 일은 아마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케이블은 케이블대로 나름의 영역에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동일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잣대의 시청률 경쟁은 지상파TV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YTN으로서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대 사건이다.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지난 해 8월 초 DMB 최초의 시청률 집계 결과가 나왔을 당시 K방송에서는 케이블 PP인 YTN에도 밀리는 자사 시청률 때문에 대놓고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곤혹스러웠다는 후문이 들려오기도 했다. 평상시에 전화로 업무상 또는 개별 안부를 나누곤 했던 K방송의 모 피디는 대놓고 YTN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 YTN에도 밀리는 자사 시청률

에 지상파TV 관계자로서 느껴야 했던 당혹스러움은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해 8월에 시청률 조사가 본격 시작되고 바로 맞이한 베이징 올림픽은 뉴스전문채널 이미지가 강한 우리 채널의 시청률 제고에 엄청난 효과 노릇을 했다. 뉴스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 못지않은(?) 실시간 현장 중계를 모두 소화했기 때문이다. 중계에 투입한 절대 시간도 단일 채널로 방송하는 MBC와 SBS의 중계방송 시간을 상회하는 하루 12시간 정도 중계 편성을 하는 등 물량 공세를 폈다. 광고의 기본 단가가 저렴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올림픽 개막 이전에 이미 YTNDMB의 올림픽 중계 패키지 광고 판매가 완판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2009년 1월 각 사별 평균 시청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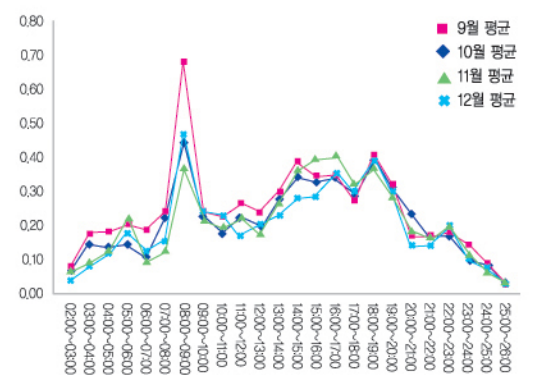
YTNDMB는 YTN의 뉴스를 전면내 내세우고 있지만 CU미디어(구 YTN미디어)에서 제작하는 '스타뉴스'를 비롯한 '편편 게임이 좋다', '상상초월 마이 애니' 등 엔터테인먼트성 프로그램을 전면내 배치하면서 뉴스전문채널 YTN과 차별화된 편성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사이언스TV에서 지원해주는 재미있는 과학 프로그램도 DMB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콘텐츠로 제 몫을 다해주고 있다. YTNDMB의 프라임 타임 대는 아침 8시대와 저녁 6시대이다. 출근시간대에 상승세를 보인 그래프는 타사의 아침 시간대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YTN의 아침 8시 뉴스가 지상파TV에서 방송하는 타 프로그램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게다가 오후 2시대에서 5시까지의 평균 시청률도 지상파TV에 견주어 그다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지만 저녁 6시가 되면 타사의 시청률을 따라잡거나 상회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퇴근시간대에 배치한 저녁 6시 YTN뉴스와 별별뉴스는 18시대 한 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눠 각각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TNS에서 8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실시한 지상파 DMB 시청률 조사 결과 YTNDMB 1일 평균 시청률 2위

1위	my MBC	0.374
2위	@YTN	0.227
3위	@KBS STAR	0.164
4위	@KBS HEART	0.098
5위	SBS@	0.098
6위	U1	0.067
7위	MBC NET	0.040
8위	1TO1	0.027

특히, 저녁 6시 YTN 뉴스와 '별별뉴스'가 방송되는 18시대 시청률의 경우 0.780까지 상승하며 MBC(0.729%)를 누르고 동시간대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2008. 8. 2 YTN 정시 뉴스 단신 기사 참조)

[9월 ~ 12월 월별 평균 시청률 추이]



대만 위성방송에 직접 진출 추진

올해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YTNDMB의 향후 행보에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오는 6월 대만에서 시작될 위성방송 70여개 채널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채널 중의 하나로 YTNDMB가 선택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만 위성방송의 사업자로 선정된 미국의 ECOSTAR는 YTNDMB가 주력 콘텐츠인 뉴스에 엔터테인먼트성 정보 프로그램을 적절히 가미한 특색 있고 나름의 경쟁력 있는 채널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점에서 YTNDMB는 뉴스를 메인 콘텐츠로 삼으면서도 사이사이에 엔터테인먼트 또는 정보성 프로그램을 적극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차량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채널 경쟁력을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휴대전화 쪽으로도 경쟁력의 폭을 넓혀가고자 한다. 특히 주말이면 YTN의 편성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은 DMB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일 오후 시청자들을 흡인할 수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DMB에서는 도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교통정보 프로그램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모토로 삼고 있는 YTN이 YTNDMB를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이제 뉴스 중심의 살아있는 정보 중심의 파워풀한 프로그램으로 중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YTNDMB는 급변하고 있는 콘텐츠 파워 시대에 최후 승리가 되기 위해 오늘도 프로그램 기획이란 칼에 날을 세우고 있다.



박철원 YTN DMB 채널운영팀장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수상

YTN에 나타난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도심에 출현한 것을 최초로 영상에 담았다. 자칫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상황을 기자 정신을 발휘해 영상기록으로 남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심사평이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제24회 이달의 카메라기자상 보도뉴스부문 수상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생의 상태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호)가 YTN에 나타났다. 맑은편 건물 간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움짱달짝하지 않는 진귀한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광경이 되고 있었다. 그런 부엉이를 맞이한 것은 인근에서 날아온 수십 마리의 까치 무리. 그들은 검은 깃털 공격으로 혼자 있는 부엉이를 위협하고, 고함도 질러보았지만, 미동도 않던 부엉이의 일순간 광풍과도 같은 날갯짓과 위엄 있는 울부짖음은 수많은 까치 무리를 압도하며 새로운 영역의 주인으로서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수적으로 우위인 까치 무리 중에 용감한 몇 놈은 대범하게 일대일 공격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부엉이의 거센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에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하고 물러서야만 했다.

누가 보냈을까 부엉이는

수리부엉이는 몸길이 약 66cm로 몸 전체가 황갈색을 띠며, 가슴 등 날개에는 검은 줄무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부 이북 지방의 깊은 산 암벽과 강가의 절벽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끈게 선 자세로 나뭇가지나 바위에 앉아 있다 밤에 꿩, 산토끼, 집쥐, 개구리, 뱀, 도마뱀 등을 잡아 먹는다. 수리부엉이는 인간과 친숙한 텃새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감소하는 보호 조류로서 한국의 희귀 및 위기 동물로 지정되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흔했던 이들은 생포되어 시장에 팔려가는 모습이 드물지 않게 눈에 띄었다고 한다.

야생에서의 강자인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천적은 인간이었던 셈이다. 보호 조류 지정 이후엔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환경오염과 개발이 부엉이에게 더 큰 위협이 되어, 원래의 생활 터전이었던 야생에 더는 살 수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철거민 신세가 되어 버렸다. 더욱이 그들이 내몰려서

찾아온 도심 생활은 더욱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과 부엉이

사람들에게 친숙한 부엉이로 몸길이 약 25cm의 숲 부엉이는 도시의 공원이나 숲의 나무에 생활하며 곤충, 박쥐, 작은 들새 등을 먹고 살아 왔지만, 인간과의 공생은 그들의 신장과 간에 중금속인 카드뮴(Cd) 등을 체내에 축적시키고 병들게 하였다. 수리부엉이도 식이 습성이나 서식지 환경이 도심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중금속 오염의 위험은 커질 것이고, 천연기념물 지정과 보호는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부엉이가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인간중심의 자연 파괴에 대한 경고이며, 미래를 보는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다. 부엉이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살 길이 될 것이다.

김종완, 박영주 영상기획팀

해외리porter 초청 연수기

이게 웬 떡이나

처음엔 이게 웬 떡이나 싶었다. 간밤에 꿈자리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아침에 신문에서 확인해 본 별자리 운세가 특별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YTN에서 나를 한국으로 '초청' 해 준다는 게 아닌가? 그것도 모자라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준다니. 솔직히 열렬결에 'YTN 글로벌 코리아'의 리porter로 슬쩍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여도가 형편없이 낮은 나로써 이진 거의 황송한 수준의 제안이었다.

연수의 목적은 '방송에 필요한 실무 교육' 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수의 목적이나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솔직한 당시 나의 심정을 그랬다. 그보다는 오랜만에 한국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 한국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이렇게 계획 없이 볼 수 있다는 데 나는 들떴다. 우리말을 마음껏 하고, 우리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고백하건대 나는 제사보다는 젓밥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나는 터질 것 같은 기대감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고,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해 연수 일정을 받아보는 순간 나는 일주일 동안 뻘뻘한 일정에 깜짝 놀랐다. 뉴스의 기사 발굴부터 기사작성법, 새로운 미디어의 방향에 대한 이론 강좌부터 6mm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까지 실용적인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순간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다. 아, 휴가인 줄 알고 왔는데 폭 쉬고 놀기는 틀렸구나 하는 가벼운 실망감. 대신 전혀 기대 하지 않았던 알찬 교육 내용



에 대한 새로운 욕심이 밀려들었다.

그랬다. YTN 에서 준비한 초청연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외에서 동떨어져 활동하는 리porter들을 배려하는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기사의 소재를 잡는 법부터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 시청자들이 관심 있을 만한 뉴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수업.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명칭에 걸맞게 변화무쌍한 우리나라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와 언론 관련법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던 수업. 리포트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레이션 교육이나 인터뷰 방법,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은 참신하면서도 어디서도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그 중에도 우리 해외 리porter들이 다들 가장 열광(?) 했던 시간은 영상 이론과 촬영 실습이었다. 그 동안 나름대로 현장에서 기사를 발굴하고 제작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체계적인 기술은 턱없이 부족했던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주는 교육, 말 그대로 생생한 산교육에 우린 모두 즐거웠고 신났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 뻘뻘한 일정에 혀를 내둘렀던 우리들 모두 하루가 다르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연수 일정은 정말 말 할 사이 지나갔다. 짧은 기간에 비해 정말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은 따로 있었다. 그건 이 연수를 통해 우리 해외 리porter들 역시 YTN의 소중한 한 식구임을 확인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작은 노력이 생생한 뉴스가 되어 고국의 안방에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느낀 가슴 뿌듯한 자부심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비록 독립군처럼 뉴스 아이템을 찾아 외롭게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YTN 이란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나와 똑같이 남의 나라를 종횡무진 누비며 취재를 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 이번 YTN 해외 리porter 연수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마음 든든함이 아닐까?

김수정 글로벌코리아인 런던 리porter

프로그램 탐방 - 사이언스 투데이

400회 맞이하는 중견 프로그램

사이언스 투데이의 탄생

2007년 9월 17일 낮 12시. 5, 4, 3, 2, 1 서버 스타트~! 사이언스TV가 사상 첫 전파를 뒀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연 프로그램은 데일리 과학뉴스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투데이'였다.

지금은 녹화방송으로 진행되지만, 개국 첫 방송 당시에는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사이언스 투데이 1회에는 남극세종기지를 화상전화로 연결해 세종기지 대장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일반인들이 사이언스TV에 바라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이밖에도 사이언스TV의 자체제작 프로그램과 외주제작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구매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그리고 첫 회를 더욱더 알차게 장식할 하이라이트 리포트가 편성됐다. 방송 사상 최초로 한국의 첫 로켓 KSLV-1의 연소실험을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다. 사이언스 투데이의 우두머리(?)이신 김진두 선배가 장장 6시간 동안 산 넘고 물 건너 고흥 나로 우주센터로 달려가 제작한 가장 의미 있는 사이언스 투데이 1회의 리포트였다. 우리 팀은 25분의 개국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1주일 넘게 밤낮으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래서 이당시 우리 팀은 사투(死鬪)팀 라고도 불렸다.

개국 방송을 했던 당시가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사투는 어느덧 40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주5회 방송인 걸 감안하면 벌써 2년을 넘어 3년째를 향해가는 나름 사이언스TV의 중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사이언스TV에서 만나볼 수 있는 데일리 과학뉴스 프로그램이다. YTN에서는 새벽에 방송된다. 간혹 이 시간대 방송을 보고, 문의 전화하는 시청자 분들이 제법 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과학계 소식 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학 뉴스도 만나볼 수 있다.

방송시간 25분 동안 생명공학, IT, 환경, 우주, 의학, 건강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과학계 뉴스를 편성해



방송하고 있다. 또 과학계 최신 연구 성과는 자체 인력으로 발 빠르게 취재해 방송하는 기동력도 갖추고 있다.^^v

또 두 가지의 주간 출연물을 기획해 편성하고 있다. 첫 번째는 매주 목요일 방송되는 '쓴소리 단소리' 코너이다. 이 코너는 과학기술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있지만, 방송에는 초보이신 각계 인사들의 '쑥스러운' 녹화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다. 두 번째는 금요일에 방송되는 '스페이스 투데이' 코너이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에 발생한 다양한 우주 관련 소식들을 천문·우주 과학 전문가로부터 직접 우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생동감 있는 우주 영상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밖에도 특별한 과학계 인사나 이슈가 있을 때는 직접 관계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앵커와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인터뷰를 진행하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사이언스 투데이를 만드는 사람들

오후 4시. 사투의 방송 녹화시간이다.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우리 팀원들은 아침부터 취재와 촬영을 나가고, 사무실로 복귀한 후에는 기사를 쓰고, 오디오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한다. 그리고 나서 방송녹화를 하고, 또 내일 계획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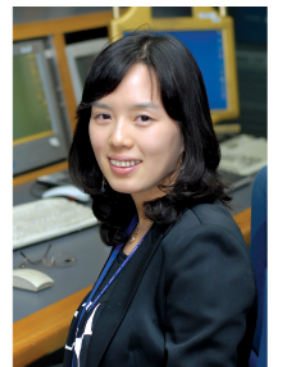


아이템 섭외 일정을 잡는다. 이렇게 숨 가쁘게 움직여도 때로는 오전에 취재한 기사를 당일 방송에 사용하다보면 녹화시간인 약속된 4시를 훌쩍 넘겨 방송에 들어가기도 일쑤다. 그래서 종종 본의 아니게 녹화를 기다려야 하시는 3부조 선배들께 항상 죄송스런 마음, 또 늘 온화하신 표정으로 기다려주셔서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리고 매일 오후 헤드라인 녹음을 도와주는 낭랑한 목소리의 기상팀 식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렇게 매일 함께 도움을 주는 인원 이외에 사·투를 만드는 제작진은 전부 5명 내외이다. 소수인원으로 매일 25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한 명이 기사작성, 편집, 촬영 등 제작 전반에 걸친 모든 역할을 겸해야 하는 멀티플레이어야만 할 때가 많다.

오늘도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멀티 플레이어 사투팀 파이팅!!!*^^*

박새영 PD 사이언스TV 편성기획팀



'미래의 언론인'이 보는 사이언스 투데이

다양한 역할과 일... 멀티플레이어

고정관념이 깨지다!

2월 둘째 주, YTN 사이언스TV를 만났다. 사이언스? 학창 시절, 과학이라 하면 내겐 화학, 물리 같은 머리 아프고 어려운 과목일 뿐이었다. 과학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평소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없고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이언스 TV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 - 사이언스 투데이, 토마토, 꾸러기 과학여행, 보물섬 등 - 을 보면서 과학을 이렇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도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다. 생활 속에 과학을 접목시켜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과학을 접하고 알게 하는 사이언스 TV. 고정관념은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야, 몸소 체험해보고서야 깨지는 법이다.

멀티 플레이어

평소엔 과학이나 환경, 건강 등과 관련된 뉴스를 유심히 보았던 기억이 없다. 사이언스 투데이라는 데일리 뉴스팀에서 일한 지 이제 1주일. 국내든 나라밖이든 중요하고 흥미로운 과학계 소식을 매일매일 찾아보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내게 주어진 역할은 과학 한줄 뉴스에 들어갈

뉴스거리를 찾고 한 줄로 기사를 요약하는 일이다. 또 그날그날의 과학계 행사는 무엇이 있는지도 찾는다. 신문 방송학을 전공한 나는 영상제작 동아리에서 활동했었다.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방송장비를 접해봤었다. 이곳에서도 뉴스 자료를 캡처하고 편집하는 일도 배운다. 오히려 학교 다닐 때보다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일한 1주일에 더 많은 편집을 해 본 것 같다. 동아리에선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연출을 맡았을 경우에 편집을 하는 편이었으나 여기에선 누구나 다 한다. 선배님들을 보면서 멀티플레이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촬영을 나가기도 하고 기사를 쓰기도 하고 편집도 하는 등 기자의 역할, 카메라기자의 역할, 연출의 역할을 모두 소화해 낸다. 다양한 역할의 일을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 바로 사이언스 TV이다.

김신혜 사이언스TV 실습생 (한양대 신방과 2월 졸업)